

국토지리정보원 제28대 신임원장 취임

지난 8월 12일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 사공호상 신임 원장의 취임식이 개최됐다. 사공호상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토지리정보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관의 정체성 확립, 공간데이터의 생산체계 혁신 지속 추진, 미래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방안 마련 등 향후 기관 운영 주요 전략을 밝혔다.



사공호상 신임원장 취임

주요 외빈과 기념사진 촬영

창립기념일 맞춰 국토위성센터 개소식 예정



국토위성센터는 시스템활용실, 활용분석 처리실, 전산실 등으로 구성되어 국토위성기획담당, 국토위성운영담당, 국토위성활용담당의 조직을 갖추고 본격 운영됨

국토위성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으로 국토이용 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위성센터가 국토지리정보원 창립기념일(11.1)에 맞추어 개소식을 진행한다. 국토위성센터는 지난 3월에 착공해 약 8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연면적 962.5㎡의 3층 규모로 건축되었다. 본 개소식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을 포함해 국내 위성센터, 공간정보 관련 학회 및 협회, 대학 등 산학연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국토위성센터는 2020년 3월 발사 예정인 국토위성(차중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내실 있는 운영 준비를 할 계획이다.

제14회 전국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 개최



김민찬 어린이가 2019 CHINDREN'S WORLD MAP COMPETION 최우수상 수상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제14회 전국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화합하는 지구촌'을 주제로 9월부터 10월까지 공모 및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2021년 세계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에 출품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매년 주관하는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는 2017년, 2019년 세계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 최우수상 수상작을 배출하며 학생들이 지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국토엑스포 지오매틱스 포럼 개최



지난 8월 8일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한 초융합 정책 분야 컨퍼런스인 지오매틱스 포럼에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기획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 공간정보 분야의 미래 융복합 전략을 이끄는 기관으로 이미지를 제고한 기회였고,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능과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소명을 느끼는 자리였다"라고 전했다.

공간정보의 감동과 고산자 김정호 선생의 국토 사랑을 잇는 소식지

공간이야기도

www.ngii.go.kr / 2019. 10. 10 / No.05

autumn

이슈

스마트한 미래를 여는 큰 걸음, 디지털 공간정보의 최신기술을 모으다

우리들 이야기

기분을 지키는 바른 열정, 청년정신으로 사는 사람들

이번 호에서는 지난 8월 진행된 스마트국토엑스포의 이모저모를 소개하고, 새로 제28대 원장으로 임명된 사공호상 신임원장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또 열린 청년정신으로 뭉친 지리정보과를 찾아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전 직원 토크콘서트 참석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 주관 토크콘서트에 국토지리정보원 전 직원이 참여했다. 국토지리정보원뿐 아니라 서울 국토청 등 5개 기관이 함께한 이 행사는, 소통을 통해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기관장과의 소통 행사, 청렴 교육, 적극 행정 교육 등 소통의 기회를 넓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경력경쟁채용 최종합격자 임명장 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진행한 경력 경쟁채용의 최종 합격자 3명이 임명장을 수여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채용으로 국토측량과와 지리정보과, 국토위성센터의 신규자 임용이 이루어졌다.

국토정보 플랫폼 UI-UX 전면 개편 및 홍보 수요조사






국토지리정보원이 공간정보 수요자의 기관 만족도 제고를 위해 홍보 및 홈페이지 접근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지난 8월 개최된 스마트엑스포 기간 동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국토지리정보원 홍보 수요 조사에 이어, 2차는 유관기관 및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해 전면 개편한 국토정보 플랫폼 홈페이지의 사용자 대상 선호도 조사와 국가지도집 웹페이지의 최신화 관련 콘텐츠 선정과 UI-UX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알립니다**

전보

(공간영상과 → 국토위성센터)
시설7급 정승균
(기획정책과 → 운영지원과)
행정7급 신진아
(운영지원과 → 국토조사과)
행정6급 허영란
(국토조사과 → 운영지원과)
행정6급 김정택
(운영지원과 → 국토위성센터)
행정7급 윤완호
행정8급 박선미

**휴직**

운영지원과 행정6급 김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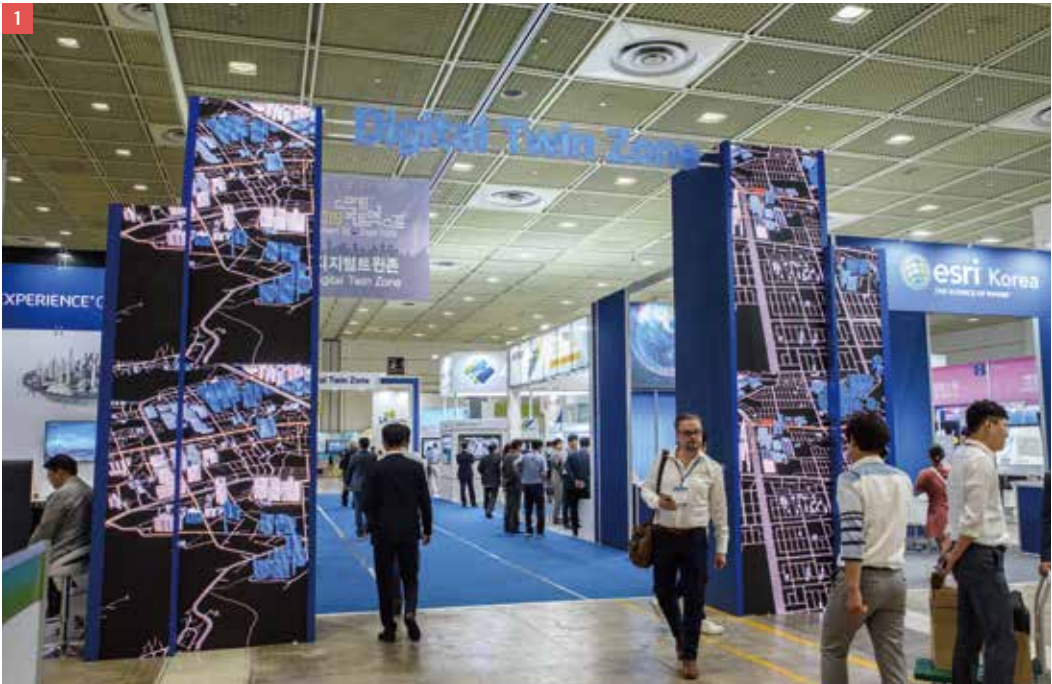
스마트한 미래를 여는 큰 걸음, 디지털 공간정보의 최신킨기술을 모으다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

국내 최대의 공간정보 교류 플랫폼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가 8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공간정보의 연결과 융합, 스마트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는 공간정보가 일상과 만나 활용되는 미래상을 신기술과 함께 소개하며 성황을 이뤘다.

세계적인 공간정보 교류 플랫폼으로 도약한 스마트국토엑스포

12회째를 맞은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그동안 국내 공간정보 기술 분야의 개발·교류,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공간정보기술의 미래 모습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기업은 물론 대중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올해는 총 24개국 정부·기업·기관이 참여하고, 85개사 197개의 전시 부스가 마련돼 점차 세계적인 공간정보 교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는 스마트국토엑스포¹의 위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공간정보 기술 현황과 인프라 정보, 융복합 사례 등을 점검할 수 있어 기술개발 분야와 산업 분야 관계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시장 입구 기술융합존에 대형 부스를 설치하고 ‘국토관측위성’ 모델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한데 모았다. ‘대한민국 공간정보의 허브’라는 슬로건이 선명하게 보인 전시 부스²는, 자율주행차가 ‘정밀도로지도’를 인지해 스스로 운행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미래의 자동차 공간이 인기를 끌었다. 정밀도로지도 시연을 체험한 한 학생(공간정보학과)은 “머지않은 장래에 자동차가 어떻게 스스로 운전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달리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공간정보가 우리 생활은 물론 신산업적인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1. 세계적인 공간정보 플랫폼의 위상을 확인한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
2. 대한민국 공간정보의 허브, 국토지리정보원의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들을 맞았다.
3. 자율주행차의 운행 모습을 시각화한 정밀도로지도 시연 시스템

EVENT

‘삼각점을 부탁해’

국토지리정보원은 100년간 국토 위치의 기준으로 사용된 삼각점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새로운 활용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삼각점을 부탁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오프라인 이벤트는 9월 28일 1차 진행에 이어 10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관악구 관악산 공원 입구에서 진행됐다. 온라인 이벤트는 삼각점 사진 공모전 형식으로 10월 20일까지 이벤트 홈페이지(<https://www.ngii.go.kr/tpevent>)에서 접수한다.

***삼각점을 찾아라!!**
증강현실(AR) 서비스 ‘삼각점 GO’ 앱을 통해 1인 미디어 DJ B.I(가제목격가), ‘채널 삼각점(정종래, 송해설, 가와의 대화와 퀴즈)’, ‘전문가와 함께하는 삼각점 이야기(삼각점 전문가의 삼각점 이야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만나볼 수 있다.

방법 1 당일 관악산공원 입구 직접 방문
삼각점 5개(가상의 삼각점 포함) 찾기

방법 2 이벤트 홈페이지 사전 신청(선착순)
제한된 시간 내에 가상의 삼각점 찾기,
전문가와 함께하는 삼각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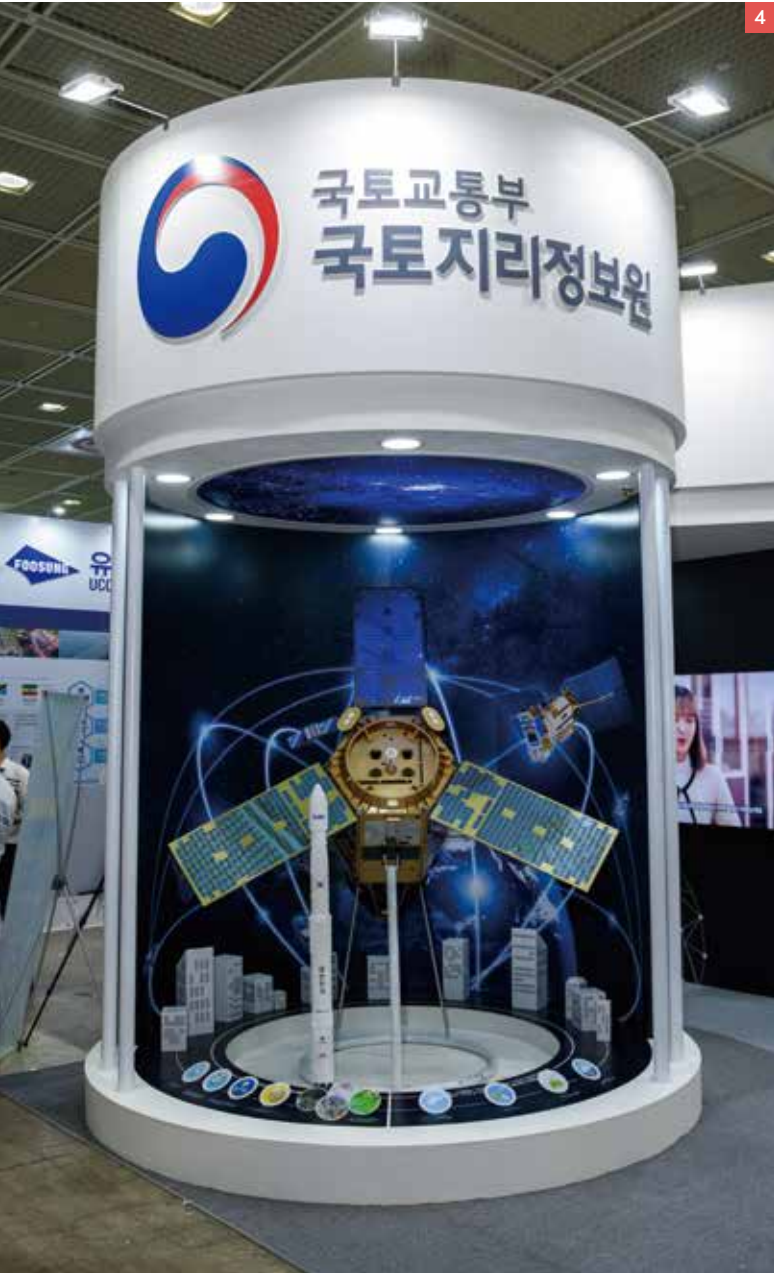
INFO

삼각점 사진 공모전

전국에 있는 삼각점 주변 경관을 주제로 사진을 촬영 후 응모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20일까지이며, 총 상금 규모는 500만 원으로 창립기념일인 11월 1일 시상한다.

국내외 공간정보 분야의 핵심 기관으로 위상 높여
국토지리정보원의 부스는 행사 시작부터 많은 관람객들로 붐볐다. 2020년부터 본격 운영할 국토관측위성 모델⁴을 살펴보고 국토위성정보의 흐름을 보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확인⁵할 수 있었다. 또 국토위성정보를 통해 어떻게 국토를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지,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간단한 그래픽 설치물을 보며 이해할 수 있었다. 관람객들은 도로의 차선과 신호등, 표지판 등 시설물을 지도화한 정밀도로지도를 구현한 체험 부스에 앉아보며 미래의 도로교통은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살펴보았다. 한편에서는 ‘삼각점 활용강화 캠페인’⁶이 진행돼 관람객들이 삼각점 캐릭터를 뽑아보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 4. 2020년 본격 가동될 국토관측위성을 관람객들에게 소개했다.
- 5. 국토위성정보의 이용을 알기 쉽도록 그래픽으로 표현해 관심을 끌었다.
- 6. 관람객들에게 삼각점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삼각점 이벤트 참여를 독려했다.
- 7. 관람 친화적인 부스, 콘텐츠가 풍부한 부스로 인정받아 ‘전시부스CS상’을 수상했다.



-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
이모저모

개최
횟수

12회

관람객

10,000여 명(3일 간)

교류
성과

국내외 60여 건의
기업 비즈니스 교류

참여
규모

24개국 85개사
197개 부스
(역대 최대)

글로벌
연계

국제측량사연맹(FIG)
회의 개최
(30개국 100여 명)



국토지리정보원은 관람객들에게 대한민국 전도와 대한민국 주변도, 세계지도 등을 담아 증정하며 적극적으로 기관 홍보를 펼쳤다. 다양한 부스 콘텐츠를 선보인 국토지리정보원은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스로 인정받으며 관람객들의 투표로 진행된 ‘전시부스CS상’⁷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의 신기술과 지식 공유를 위한 컨퍼런스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공간정보 데이터 생산·표준 세미나’, ‘국토위성 컨퍼런스’, ‘위치기준 포럼’, ‘영상정보 구축·관리 세미나’, ‘지오매틱스 포럼’, ‘건설측량제도 세미나’, ‘자율주행·정밀도로지도 세미나’ 등을 주최하면서 최신 동향을 살피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이번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500여 명의 관람객이 국토지리정보원 부스를 방문했고, 29명의 국내외 연사를 초청해 1,000여 명이 참여한 컨퍼런스도 기간 내내 화두가 됐다. 이를 통해 기관 브랜드와 전문성, 수행 역할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토지리정보원을 만들겠습니다

사공호상 신임 원장

지난 8월 12일, 제28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사공호상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공간정보 분야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을 시작했다. 지금이야말로 국토지리정보원의 미래 청사진이 중요할 때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사공호상 신임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공간정보 최고의 전문가인 국토지리정보원의 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기술발전과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을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 '숲이 짙으면 호랑이는 절로 나타난다'라는 문구를 삶의 신조로 삼고 있는데, 이는 환경이나 남 탓을 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여 실력을 쌓으면 응당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진행하는 업무와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우리나라의 위치 기준을 정하고 수치지형도 등 공간데이터를 생산·제공하고 있으며,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 업무들도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은 차분하지만 분주히 움직이는 정중동(靜中動), 사용자를 통해서 가치를 발휘하는 디지털 조력자(助力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을 외부에서 봤을 때, 그리고 내부에 들어와서 볼 때 다른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외부에 있었을 때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나 첨단기술 습득 속도를 높이는 것 등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들어와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정부기관으로써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 방향과 전략, 일관성 있는 로드맵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역시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현재의 공간정보 현황과 관련 기술발전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현재의 기술발전 트렌드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연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간의 디지털 트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공간을 단순히 들여다보기만 했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공간을 느끼고자 하며 이러한 경향이 '가상 공간'이라는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며 가상세계와 현실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공간정보'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사공호상 신임 원장을 소개합니다.

사공호상 원장은 국토연구원에서 GIS와 위성원격탐사 분야의 연구를 수행했다. 정부가 국가GIS를 도입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국가 공간정보 관련 정책과 전략, 인력양성, 법 제도, 표준, 기본공간 정보 등 NSDI의 제반 요소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며 30여 년간 공간정보 기술과 정책 분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전문가이다.

공간정보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기술은 센서 및 계측 기술입니다. 이들은 단일자원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고, 이에 따라 공간정보와 ICT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언급되는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의 활용이 대중화될수록 정확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처리하기 위한 AI, API, 클라우드 처리 기술 등이 공간정보와 융합되어 결국 공간정보 자체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민간, 정부, 공공기관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건강한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사업, 플랫폼 사업, 실내공간정보 구축, 디지털 트윈 등 다변화되는 공간정보 활용 분야에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서 목표하고 계신 바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주어진 과제에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동안의 목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과 약속 이행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인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각오를 잊지 않고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19 국제지도 컨퍼런스



국제지도 컨퍼런스(ICC, International Cartographic Conference)는 국제지도협회(ICA)가 주관하는 지도 제작 분야의 최대 행사다. 전 세계의 지도 정보와 기술 교류를 위해 2년마다 컨퍼런스, 4년마다 총회를 개최한다. '2019 국제지도 컨퍼런스'에서는 약 50여 개국이 참여해 각국의 지도·아틀라스 및 지도 제작 관련 기술·장비 등을 전시했다. 국토지리정보원도 홍보부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뛰어난 지도 제작 기술을 세계에 선보였다. 특히 독도·동해가 올바르게 표기된 지도와 책자를 전시해 국제사회에 올바른 지명 홍보를 하고 전시 출품작 중 지명 표기 오류가 있는 참가국은 별도의 상세연구자료를 전달하며 국제적 지도도 향상에 힘썼다.

- 일 시 2019. 7. 15(월) ~ 7. 20.(토)
- 장 소 일본 도쿄
- 참석자 지리정보과 우병진 事, 장수영 主

한-인도 지리원 공간정보 분야 양자 회의



한국과 인도 간의 공간정보 분야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양자 회의가 개최됐다. 인도는 대중에게 개방된 한국 지도박물관과 위성기준점 관리 및 실시간 서비스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향후 11월 호주에서 개최되는 제8차 UN-GGIM-AP 총회에서 인도와 워킹그룹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 일 시 2019. 7. 23.(화)
- 장 소 국토지리정보원 회의실 및 지도박물관
- 참석자 [한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 지리원 기획정책과장 등 9명
- [인도] 인도 지리원장, 주한인도대사관 행정관 등 3명

2019 국제 지구과학 및 원격탐사 심포지엄



국제 지구과학 및 원격탐사 심포지엄(IGARSS, IEEE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Symposium)은 지구과학 및 원격탐사 학회가 주관하는 위성과 원격탐사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대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우주기술 코리

아' 홍보부스 전시를 통해 국토관측위성 개발 및 국토위성센터 설립 관련 업무추진현황을 소개하고 국토위성을 이용한 향후 활용 계획을 알렸다. 이밖에 딥러닝, 빅데이터,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위성영상 분석·처리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면밀한 분석으로 국토위성 활용기술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일 시 2019. 7. 28.(일) ~ 8. 2.(금)
- 장 소 일본 카나가와현 요코하마
- 참석자 국토위성센터 류원일 主, 신문승 研

제9차 유엔 글로벌 공간정보관리 전문가위원회

지난 8월 개최된 제9차 유엔 글로벌 공간정보관리 전문가위원회에서는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공간정보 통합 프레임워크' 의제가 기타 기술 의제를 포괄하는 등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4개 기술 의제와 관련해 우리 측 선진기술 분야인 측지 기준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때 한국의 사례

글로벌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국토지리정보원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를 적극 소개했다. 또한 우리가 20년간 축적해 온 국가공간정보체계(NSDI)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은행과 협력할 것이며, 우리의 성공 사례를 의제 이행 시 적극 공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 일 시 2019. 8. 4.(일) ~ 8. 11.(일)
- 장 소 유엔 본부(미국 뉴욕)
- 참석자 운영지원과 조세기 과장, 기획정책과 주현희 主, 기획정책과 신승원 主

한-라오스 공간정보 분야 양자 회의



고위급 정책결정자 초청 연수 차 방한한 라오스 대표단과 공간정보 분야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 중인 라오스는 국가기준 점 관리 및 갭신 노하우, 지하시설물 측량 현황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라오스 지리원장은 비엔 티엔 시 지형도(1/2,000) 제작 지원의 감사 인사와 함께 공간정보 관련 한국과의 협력은 중요하며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일 시 2019. 8. 8.(목)
- 장 소 국토지리정보원 회의실 및 지도박물관
- 참석자 기획정책과장, 라오스 사바나캣주 부지사 및 지리원장 등 23명

GNSS 측위 및 위성항법 분야 국제 워크숍



GNSS 측위 및 위성항법 분야 국제 워크숍 ION+GNSS 2019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됐다. ION(Institute Of Navigation)은 항행 및 항법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단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위성항법기술 관련 기술 세션, 기술 전시회와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2020년부터 전국 60개소의 위성기준점의 대국민 서비스 시작에 따른 국내 활용을 위해 ION+GNSS(2019)의 선도 기업의 기술 개발 전략과 사업모델을 집중 검토했다.

- 일 시 2019. 9. 15.(일) ~ 9. 21.(토)
- 장 소 미국 마이애미
- 참석자 국토측량과 이원국 事, 김현호 研

제14차 한·중 측량 및 지도제작 기술협력 회의



중국과 함께하는 측량 및 지도제작 기술협력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양국의 공통 관심 기술사항인 위성 운영과 활용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발표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위성관측센터(LASAO)와 국가지리정보

센터(NGCC) 기술 협력 회의에서는 빅데이터, 딥러닝 등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성영상 처리 및 융합 기술과 플랫폼 연계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

- 일 시 2019. 9. 17.(화) ~ 9. 20.(금)
- 장 소 중국 베이징
- 참석자 국토위성센터 이진우 센터장, 공간영상과 전부남 事, 국토조사과 신상호 事, 국토위성센터 신문승 研

기본을 지키는 바른 열정, 청년정신으로 사는 사람들

지리정보과 부서 탐방

한 개의 동전이 든 항아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든 항아리는 소리를 내지 않는 법이다. 지리정보과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당당하게, 청년 정신과 전문가 마인드로 업무에 임한다. 선배 직원부터 후배 직원까지, 각자 지식과 경험의 폭은 다를 수 있어도 국토지리정보원을 성장시키고 조직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는 모두가 한뜻이다.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근간이 되는 국가기본도의 초석을 다지는 막중한 역할이 주어져 있지만, 목표가 흔들림 없기에 이들은 일심동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지리정보과는 국가기본도를 책임지는 기본지도계, 다양한 형태의 지도를 제작하는 지도활용계, 만들어진 지도의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품질관리계 등으로 구성된다. 직원들 면면을 살펴보면 비교적 젊은 얼굴들이 많이 눈에 띈다. 직원들은 누구나 업무의 경중이나 편중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이며, 신구(新舊)가 위화감 없이 조화된 모습이야말로 지리정보과의 장점이라고 말한다. 고참 직원은 기술 트렌드와 대외 동향에 열려 있고, 후배 직원은 업무 관련 지식정보 위에 경험을 쌓기에 최선을 다한다. 이웃한 타 부서 직원들은 늘 깨어 있고 젊은 감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지리정보과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귀띔한다.

추석이 지나고 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부는 어느 오후, 이들 열여덟 명의 얼굴들을 만나봤다.



“업무는 완벽하게 분위기는 뜨겁게, 프로페셔널을 꿈꿉니다”

저희는 국가기본도, 국가공간정보 등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담당합니다. 시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된 지금, 1: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본도를 자동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사업’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에 우리 부서에는 업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선배 직원들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성장 발전을 위해 다 같이 애쓰는 만큼 이심전심이 통해 좋은 분위기가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오랜 벗처럼 함께해요”

지도활용계에서는 국가기본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파생적인 지도들의 공급·관리, 정밀도로지도와 점자지도 같은 특수지도의 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만들어진 지도를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합니다. 현재 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다른 부서 직원들, 외부 전문가들과 많은 협업을 통해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작은 조직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력이 빠르고 정보력이 탁월한 고참 직원과, 습득력이 뛰어나고 열정과 의지가 가득한 후배 직원이 포진해 있어서 가장 균형적인 조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도활용계



기본지도계



품질관리계

“품질에 관한 철두철미한 완벽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원에서 생산하는 지도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품질관리계획과 기술 기준, 검사업무 매뉴얼 등에 기초해 생산된 지도의 정보 완전성, 위치 정확성, 논리 일관성 등을 검사해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팀원은 6명이고, 각자 오랫동안 품질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들입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강하고 청렴하며, 신기술에 대해서 큰 호기심과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 원의 대들보라고 감히 자신합니다.



mini INTERVIEW

지리정보과 이하준 과장

지리정보과는 어떤 일을 하나?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공간정보, 즉 지리정보체계의 기본 조건인 국가기본도를 만드는 부서입니다. 수치지형도와 인터넷지도, 정밀도로지도, 점자지도 등을 제작·관리하고, 품질 검사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정확한 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 규모와 특징은?

현재 18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꼼꼼하고 전문적이며, 맡은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부서라 기본기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무 지식과 동료와의 시너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타 부서에 비해 젊은 팀원들이 많은 편인데, 나이와 직책에 구애됨 없이 조화로운 팀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리정보과의 역점 프로젝트는?

그동안 직원들이 제작해온 각종 지도를 빠르게 갱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의 국가기본도를 확보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려고 합니다. 1:5,000과 1:1,000 수치지형도, 정밀도로지도 제작 외에 우리가 축적한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